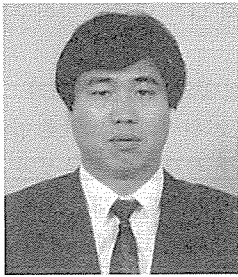


소재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을



박종운 : 천화동인산업(주) 회장

현대 문명사회의 철저한 환경과피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인간소의 즉, 기기 중심의 삭막한 생활 공간으로부터 탈출하고 생명과학과 환경공학에 기초한 자연으로의 회귀를 위한 제 1단계로서, 적당한 습도를 지닌 정상적인 공기와 환경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천연 광물자원의 원적외선 방사 소재들이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화동인산업(주)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세로 비금속 소재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끊임없는 연구활동으로 산업용 기초소재 특히 'SILICA의 고순도화, 초미분·분급화'에 주력하고 많은 기초 및 합성소재 개발로 수입대체는 물론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 원적외선 방사소재로 그 가치가 각광받고 있는 광물인 SERICITE 광산(장성 지적 제8호와 죽번지적 제 148호·149호)에서 추정 매장량 약 280만톤으로 생산, 정제 및

분체를 하고 있으며, SERICITE는 수분이 많고 도자기나 내화벽돌의 혼입재로 쓰이며

그 밖에 도료·전기절연체·활마재(滑摩材)·화장품용 등 용도가 다양하다. 또한 광물중 원적외선 방출이 대단히 우수하고 가장 인체 친화적인 원료로써 바이오 세라믹과 원적외선 응용상품에 아주 적합한 기초원료가 되며 특히 당사 광산에서 공급하는 세리사이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품위로써 분말화하여 공급하고 있다.

소재산업의 올해 세계 시장 규모는 수천억 달러로 향후 2~3년 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써 당사는 신뢰성 확보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창업이후 단순한 제조, 생산업체에 안주하지 않고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蘭 식제용품 등 사업영역의 균형있는 발전성을 겸비한 첨단 원적외선 소재 제조업체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네가지 사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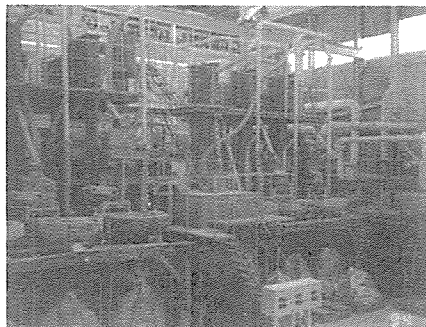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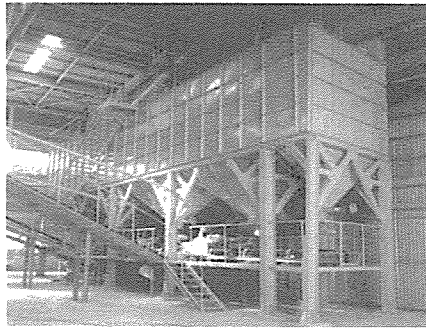
첫째로 日本 닛신 사료상사에 사료 및 영양제로 SERICITE를 연간 600ton 수출 계약을 하여 일본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국내 (주)새생명 바이오와 합작하여 화장품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 蘭시장(식제용) 및 국내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남 蘭 협회와 합작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가격,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원료 및 제품별 신기술 개발을 하며, 네 번째는 건축자재, 내·외장재, 욕조 및 온열 류마티스 치료기 개발을 위해 (주)백산 오엠비사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분체, 분급 기술의 선두주자인 일본 닛신사와의 최첨단과 기술과 국내 목포 동영기공(주)의 설비를 합작하여 국내 신소재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 새로운 아이템 선정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최근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 품질보증 (FI마크)업체로 지정받은 후 여러 원적외선 관련업체와 기술·업무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항상 신뢰받는 원적외선 관련 업체들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다.

21세기 원적외선 방사소재 선두업체로, 인류의 복지건강과 환경산업에 기여하는 초일류 Bio-Tech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술의 질적 향상과 철저한 품질관리 및 첨단 설비투자를 통해 건강, 환경, 신소재 등의 고부가 제품개발 및 생명공학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기술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국내기술의 향상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를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전화 : 051)853-8545